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조경완



정부가 창출한다는 일자리라게 허드렛 일이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제레미 리프킨이 '노동의 종말'에서 예로 든 TWA 항공 동체정비사 크레이그 밀러. 시간당 15.6달러(주급 750달러·연봉 4만 달러)를 받던 그가 해고된 뒤 그의 부인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4개를 뒤면서 그가 받던 봉급의 절반을 받지 못한다. 클린턴 정부의 신규고용 대책 발표를 들으며 그는 실소한다. "대통령 말이 맞아. 우리는 4개나 가졌으니 말이야"

(첨단 반도체 칩이 내장된 산업용 로봇·자동화 설비)는 블루칼라들만 거리로 내몬 게 아니다. 사무직 종사자와 중간관리자인 화이트칼라도 같은 운명이었다. 이들은 '핑크칼라'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급,

職業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즉 세븐일레븐이나 맥도널드에서 일하는 저임 서비스업 종사자로 전락한다.('Mc job'은 이미 '저임 일자리'라는 영단어가 됐다!) 그나마 그 수는 많지 않다. 나머지들은 대낮 정장을 하고 도서관에 나가 구인 잡지를 뒤적이지만 수개월내 거실 소파에 종일 파묻혀 TV를 응시하는 침묵자로 변모한다.

최근 수년간 우리의 고용없는 성장과 유례없는 청년실업은 사오정·이태백도 모자라 삼일절(三一節·서른살이)이후 취업이 막혀 질량) 십오야(十五·열다섯이

면 앞이 캄캄)란 말까지 만들어 내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치솟지만 주주들은 더 많은 배당을 위해 기업에 다운사이징을 요구한다. 노동집약적 기업들은 저임과 무분규를 찾아 해외로 떠나고 정부는 기업들 대신 월급 40만원짜리 일자리를 분주히 만들 따름이다.

시장론자들, 자유주의자들은 정부가 기업의 무한이익추구를 보장할 때 신규투자가 일고 신규고용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량고용이 필요한 직종은 날로 줄어간다. 하이테크시대 그 고용은 기대

보다 적게 마련이다. 분배론자들, 평등주의자들은 기업에서 세금을 뜯어 정부가 이 돈을 복지에 쓰면 되지 않느냐지만 실업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산층은 저

됐어"라는 하이테크 시장주의는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에 확신을 심어줬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신자유주의는 종건

성장-분배 논쟁 이제그만

분배를 강조하던 참여정부가 임기말을 앞둔 지금 신자유주의로 선회하는 내부고 통을 겪는 모양이다. 미국이 좌파인사로 분류한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날 갑자기 한미 FTA를 역설하고, 참모들간에는 노선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권 담당자로서 줄어드는 '파이'를 방치한 채 분배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세력을 얻었을 것이고, 여전히 통제와 분배가 사회적 정의에 필요하다는 탈레반들도 세력이 여전히

해묵은 성장-분배논쟁을 지켜보기도 지겹거니와 신자유주의가 만발해도 일자리 만들기는 옛 같이 쉽지 않다. 그사이 원유값은 70달러를 넘어섰고 초우량기업들도 매출이 급감하고있다. 10년후 한국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지식층 사이에 늘고 있다. 논쟁할 에너지가 있거든 하이테크 시대 '고용있는 성장'을 이룰 산업모델개발에 써주길 바랄 뿐이다.

<논설위원>kycho@kwangju.co.kr

시설

유권자 54%가 무관심한 5·31 지방선거

중앙선관위가 최근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가 "5·31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됐던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3.9%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유권자가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조사된 것은 그만큼 정치 무관심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반증이다. 정치 무관심은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주민참여가 성공의 관건인 지방자치에 있어서 낮은 투표율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우려스러운 징표다. 지난 1995년 68.3%에 달했던 지방선거 투표율은 2002년에는 48.6%로 추락했다. 이번 5·31 선거 역시 투표율 50%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진대는 여·야를 포함한 기성 정치권 책임이 적지않다. 선거가 임박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폭로와 실현 불가능한 공약(空約) 남발이 극에 달할 우려가 있다. 민생은 팽개친 채 진흙탕 싸움만 벌이는 정치판에 등을 돌리는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 정치불신이나 무관심에 그치지 않고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국민들이 생겨날 정도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지율 높이기에만 급급한 구태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정책대결을 통해 민생정치·무정쟁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유권자들도 지역 살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조직과 자금동원력이 우세한 후보가 절대 유리할 수밖에 없다. 지역발전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면밀히 살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책무다.

유가 70달러시대, 정부 관심이라도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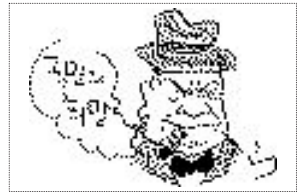
유가의 고공행진이 심상치않다. 17일 미국텍사스중질유(WTI)는 배럴당 0.51달러 오른 70.2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 수입원유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 역시 64.1달러로 지난 11일 기록했던 최고가 63.63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사회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원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유가상승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현실로 다가설 경우 유가 100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가 상승을 목표 달성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두바이 유가가 55달러 전후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올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해왔다.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반기에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능력이 높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고유가가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으나 정부 대책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사회전반의 분위기도 아직 이렇듯 고유가는 감내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차라리 10부제 운영과 같은 임시방편이 고작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고유가에 대비한 다각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에너지 절약형 가전기기 생산과 보급에 힘쓰고 에너지 가격 현실화로 얻는 수익은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관련 투자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3%대에 불과한 석유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원외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無等鼓

정치도 산업이다. 산업은 상품을 생산하지만, 정치는 정신을 만들어낸다. 전통산업엔 자본과 기술, 노동력이 투입되는 반면, 정치산업엔 오로지 인간성이 투입된다. 정치산업은 세 종류의 권력을 창조한다. 하나는 5년마다 생산하는 대통령 1인 권력이다. 다른 하나는 4년마다 만들어내는 국회의원 집단권력이다. 셋째는 지방자치 권력이다. 세가지 권력은 서로 협조하고 견제하고, 충돌한다. 그런 가운데 국가 공동체의 앞날이 정해진다. 정치는 산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초산업이다. 정치산업이 번영하면 온 나라가 부강해지고, 병들면 온 나라가 망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정치인은 기초산업을 일으키는 중요한 자원이자, 근세 정치인이 나라를 살린 자원이 됐던 예가 미국 과영국에 있다. 1930·40년대 두 나라는 자칫 망할 수도 있었다. 대공황과 막강 독일군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경제력·국력은 바

다였다. 그러나 미국에는 루즈벨트, 영국에는 처칠이라는 소중한 자원이 있었다. 두 사람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여 권력을 발휘하게 했다. 루즈벨트의 호소 한마디에 대공황에 찌든 미국민들은 허허벌판으로 나와 공장을 짓고 무기를 만들어냈다. 그때 미국의 진정한 자원은 석유, 철강, 기술 등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루즈벨트라는 정치인이었다. 몇년 전 삼성 건희 회장은 산업적 측면에서 빌 게이츠를 예로 들며 "천재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린다. 훗날을 대비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정치산업에서 먼 훗날 국민된 자부심과 희망, 공동체 의 목표를 생산할 수 있는 일류 정치인을 키우자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5·31 지방자치 권력의 탄생을 앞두고 있다. 수많은 입자들이 저마다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산업에서의 소중한 자원이 과연 누구인지, 제대로 가려내는 안목이 필요한 때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백강화



'헬빙라이프'가 유행이라서 그런지 어느 날 부턴가 갑자기 자전거가 몹시 타고 싶어졌다. 버스나 택시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자꾸 실만 찢어는 데다, 아무거나 걸치고 나갈 수도 없는 교통수단이고, 걷는 운동이 좋지만 사실 시간낭비가 너무 많고 빠리빠리한 성격상 잘 맞지도 않았다. 그러니 딱 그 중간인 자전거 타기가 바로 내 제격이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지, 당장 아들 자전거 고르러 갔다가 내친 김에 내 것까지 사버렸다. 전문가용 빼고 요즘 자전거는 옛날처럼 그렇게 부담 가는 물

에게 내 자전거가 흥기가 되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도로 내려오면 일부러 차들이 내 옆에 썩성 달려들 듯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마치 나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 놓고 달릴 수 없다고 분풀이라도 하듯이. 두 번째 문제는 빵구가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것이다. 빵구가 나면 당장 때우는 데도 금전적인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자전거로 까지 끌고 가는 것이 피곤하고 부끄러웠다. 이 빵구의 원인은 도시 위를 굴러다니는 무수히 안 보이는 미물들이었다. 나사, 병마개, 유리조각 병마개 등

도심에서 자전거 타기

건이 아니었다. 예전에 아버지가 예지중지하며 20년 동안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본 것이 었고 제 같은 데 참 세월도 많이 변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런 값싸고 좋은 자전거 있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 하셨을까? 그런데 막상 자전거를 타고 나가자, 도심에서 자전거 타기가 그리 쉽지 않다. 다는 걸 빙방 깨달을 수 있었다. 자전거 타기 운동이 벌어진 자가 언젠데 도심은 이제 더 이상 자전거에게 친절하지 않다. 첫 번째 암초는 너무도 위험하다는 것이다. 자전거도로라고 하는 인도상의 빨간 도로는 구간도 짧으려다 울퉁불퉁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선 보행인들

등, 특히 인도 상에서 작업을 해 내는 기계 앞을 지나다보면 많이 일어났다. 그런다고 함부로 따질 수도 없고, 만일 아프리카 '아베베' 같은 선수들이 맨발로 뛰면 그는 바로 병원으로 뛰어가야 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극성스런 자전거 도둑들이다. 벌써 고집스레 3대째 사서 타고 있지만 풀잎없이 분실 위험에 시달린다.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전거 타기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안장 위에 앉아 있으면 스키는 바람도 좋고, 온 몸이 죽죽 퍼지는 스트레칭 효과도 그만이다. 그동안 차속에서 느끼지 못했던 이런 기분 때문에 그만한 값을 치룬다고 위안한다. <주부·2005년2월 수성자>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독자마당

소액이라도 현금 영수증 발행 꺼려선 안된다

얼마 전 재래시장 인근 상가에서 가방을 구입했다. 가방 값을 지불한 뒤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했는데, 주인은 5천원이 조금 넘는 데 무슨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느냐며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듯했다. 주인은 재차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자 마지 못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줬다. 비록 5천원이란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5천원 이상 구입 시 현금영수증 카드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불러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소액의 경우엔 현금영수증 발행을 꺼리는 업주가 많다. 이에 단발기가 없거나, 있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격을 인하해 주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 업수도 많다.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한 현금영수증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세무당국의 지도단속과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의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겠다. ▲손혜정·광주시 광산구 대산동

기고

정기연



4월은 과학의달이다. 60년래는 4월을 식목의 달로 정해 나무를 심었다. 그러나 4월을 과학의 달로 정한 것은 우리에게 식목도 중요 하지만 과학기술 꿈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4월 21일을 과학의날로 정한 배경은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과학발전과 과학적인 생활태도를 형성시키기위해 지난 1967년 4월21일 설립된 과학기술부1주년을 맞아 1968년 4월21일부터 과학의날 행사를 개최하고있는데, 지난 1973년 3월30일 제정공표한 각종기념일에 대한 규정

그런데 해마다 선포되어 표창하는 과학꿈나무 학생들의 후속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학생들이 소질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심은 나무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손질하고 가꾸는 것으로 과학 꿈나무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출하여 크게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해마다 전국 과학전람회, 전국 발명품전시회에서 우수한 작품이 발표되고 있고 세계 기능 올림피아에서도 한국 대표가 연속 최고상을 받고 있는 것은 우리민족의 창의력이 그 어느민족보다도

과학의 날, 과학 꿈나무 발굴 육성을

에 따라 4월21일을 과학의 날로 확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부터 과학기술의 지향점과 개발전략을 설정하고 과학기술장기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영국 독일 일본의 과학기술수준까지 도달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평소에도 과학적인 생활태도로 불편한 점을 고쳐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는데 과학의날의 의미가 있다. 오는 4월21일은 제37회 과학의날이다. 과학기술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모든 국민생활의 과학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37회 과학의날에도 각급학교에서는 과학의 날 행사를 하고 학교에서 선발된 과학꿈나무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과 시상을 하리라고 본다. <전 곡성소초등학교 교장>

뛰어 남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날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 세계 17위국가라는 선진국 위치에서부터 뒷걸음치는 역대 정부가 과학기술개발교육에 힘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과학의 달을 맞이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는 마음으로 과학꿈나무들을 찾아 가꾸는 정성을 기울였으면 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과학실을, 각기업체는 신제품 개발을위한 연구실을, 직장에서도 발명과학코너를 설치해 착안한 아이디어가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게 하면 한다. 과학 교육의 내실화에 힘쓰면서 기술 혁신·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여건조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전기절약 생활속에서 실천하자

전기 사용량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 조금만 유의하면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길이 많다.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면 백열등에 비하여 70% 이상 절약되고 수명은 백열등에 비하여 6배 이상 증가한다. 에어컨은 실내·외 온도차 5℃ 이하(적정 냉방온도 26~28℃)로 유지하면 지나친 냉방으로 인한 냉방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 냉장고문을 자주 열면 냉기 손실이 많아

전기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이다. 뜨거운 음식은 식힌 다음 냉장고에 보관하자. 전기히터는 방의 온도에 맞추어 적정온도를 거실은 17~19℃, 침실은 14~16℃로 유지하시고, 커튼을 치면 방의 온도가 3℃ 정도 올라가며, 열손실이 많은 유리창·벽·천정 등은 단열을 하는 것이 전기 요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다리미는 옷감의 종류에 따라 온도를 알맞게 맞추어 사용하는 것이 낫다. ▲이계성·목포시 용해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for subscription and advertising.